
우리나라 고대 옷칠의 기원과 양지리 유물

이제현
국립김해박물관

| 목차 |

- I. 머리말
- II. 옷칠과 옷나무
- III. 우리나라 고대 옷칠의 기원과 출현
 - 1) 중국과 일본의 옷칠 출현
 - 2) 우리나라 옷칠의 출현 시점
- IV. 한반도 고대 옷칠 문화의 형성과 전파
 - 1) 세형동검문화의 확산과 옷칠
 - 2) 목관묘문화의 확산과 옷칠
 - 3) 양지리유적 칠기의 특징과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우리나라 고대 옷칠¹⁾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창원 다호리유적과(이건무 외 1988) 광주 신창동유적(조현중 외 1997)의 발굴로 시작되었다. 다호리유적 발굴 이전에도 아산 남성리유적(한병삼·이건무 외 1977) 등에서 칠기편이 확인되었으나, 온전한 칠기가 다수 확인된 것은 다호리유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다호리유적에서는 다양한 기종의 칠기와 함께 금속 부속구를 활용해 제작한 검초, 음각으로 문양을 새긴 칠기 등도 확인되었다. 또한 신창동유적 역시 다량의 목칠기와 칠기 제작도구인 칠주걱, 옷액이 담긴 토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후, 경산 입당동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대구 팔달동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성주 예산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을 비롯하여, 최근 발굴이 이루어진 충주 호암동유적(중원문화재연구원 2018), 경산 양지리유적(성림문화재연구원 2018), 경주 죽동리유적(한국문화재단 2020), 안동 가곡리유적(동국문화재연구원 2019)까지 칠기 출토 유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처럼 한반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칠기 출토 유적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역사·고고학계의 관심은 부족하다. 이는 고대 칠기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며, 발굴된 자료 역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정확한 형태나 특징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시기적 특성을 보이며 출토되지 않았기에 편년 근거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과학적 분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칠 도막이 탈락한 상태에서 옷칠 여부를 육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옷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였다. 이로 인해 그간 고대 옷칠 문화에 대한 논의는 미술사, 보존과학, 혹은 목공예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전히 이러한 한계는 뚜렷하지만 최근 양지리유적을 비롯하여 새롭게 조사된 칠기 출토 유적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고대 옷칠 문화의 기원과 출현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이 분야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칠기는 고대부터 희소성이 강하고, 선진 기술을 내포하고 있는 사치재였다. 따라서 그 확산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 교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고대 옷칠의 기원과 옷칠 문화의 확산 과정을 검토하고, 그 속에서 양지리유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글에서 옷칠과 칠기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옷칠은 정제된 옷나무 수액을 물건에 바르는 행위를, 칠기는 옷칠이 된 기물이라는 의미이다. 형태가 비교적 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는 자료는 칠기로, 흔적 혹은 편만 남아 있는 경우는 옷칠 자료로 표현하였다.

II. 옷칠과 옷나무

옷칠은 옷나무 수액을 뜻하며, 동시에 정제과정을 거친 옷나무 수액을 소지(素地)에 바르는 것을 의미한다. 옷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에 한정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대 옷칠 문화는 옷나무 자생지를 중심으로 출현하여 발전하였다. 옷나무는 현재 흑룡강성, 길림성, 내



〈그림 1〉 옷나무의 자생 범위

몽고, 청해서, 녕하 및 신강성에서는 서식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張飛龍 2010 : 16~18). 반대로 한반도와 요령지역은 모두 옷칠 문화권 내에 포함되어 고대부터 옷칠 문화가 성행했을 것이다.

옷칠의 원료가 되는 옷나무 수액을 채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나무가 고사하지 않도록 매년 적당량만 채취하는 양생법(養生法), 수액을 채취한 후 나무를 베어버리는 살소법(殺搔法), 옷나무 가지를 불 위에서 돌려 수액을 채취하는 화칠법(火漆法)이다. 화칠법은 남은 가지를 모아 수액을 채취하는 마지막 방식이기에

실제적으로 수액을 채취하는 방식은 양생법과 살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살소법과 화칠법을 혼용하고 있으나, 고대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액 채취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옷나무 수액 채취와 관련된 조선시대 기록이 남아있어 참고가 된다.

① “옷나무는 폐조(廢朝)를 지나면서부터 별채하여 거의 다 없어졌는데… (중략)”

(『中宗實錄』 권 13, 6년 2월 己亥)

② “매번 영문에서 책정해 징수해갈 때는 반드시 북을 치면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사방에서 찍어내는데, 한번 겪고 나면 밭둑에 줄지어 섰던 나무가 하나도 남지를 않습니다. 옷을 생산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자라는 것은 한도가 있고, 칠의 용도는 끝이 없으며, 칠을 생업으로 삼는 백성들도 점점 줄고 있으니, 칠이 어찌 귀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응당 사용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칠(火漆)로 내도록 책정하고, 값도 일정한 액수에 맞추어 주도록 할 일을 문서로 만들어 불변의 법식으로 삼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正祖實錄』 권 51, 23년 5월 甲子)

위의 기록에서 옷나무를 벌채하고 사방에서 찍어낸다는 내용을 볼 때,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살소법으로 옷나무 수액 채취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자료만을 근거로 고대에도 살소법으로 옷나무 수액을 채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옷나무의 수종(樹種)과 옷나무가 자생하는 자연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을 고려하면 채취방식 역시 쉽게 바뀌지 않았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현재의 채취방식 및 채취도구가 일본의 것과 유사하여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장용준 2019 : 218~219), 정확한 자료가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창동유적에서 대형토기 저부에 칠이 묻어 있는 천조각이 남아 있어 수액 채취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조현중 2012 : 238), 잔존 상태만으로는 정확한 용도나 채취 방식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는 이처럼 옷나무 채취 방식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가 부족하여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관련 자료가 좀 더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채취한 옷나무 수액은 정제과정을 거쳐 옷칠로 사용한다. 옷칠은 방부, 방습효과와 함께 내열성과 내구성을 높이며, 특유의 광택을 내는 칠도막을 형성하여 물건을 고급스럽게 한다. 옷칠은 이 같은 기능성과 미적 효과로 인해 효용성은 높았으나, 나무 한 그루당 약80~200g정도의 수액만 채취할 수 있어 고대부터 값진 재료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옷나무를 관리하고 재배할 것을 권장했으며, 전담 기구를 두어 칠기를 제작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기록상으로 칠기 제작과 관련된 국가 기구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신라시대의 칠전(漆典)이다. 이미 경덕왕(재위 742~765) 이전부터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칠전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기구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간에 식기방(食器房)으로 고쳤다는 기록을 보면 왕실에서 사용하는 칠기를 관장하던 기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도 옷칠과 옷나무는 국가의 중요관리 품목 중 하나였다. 고려 선종 5년(1088년)에는 잡세를 정하면서 옷나무에 1승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인종 23년(1145년)과 명종 18년(1188년)에는 뽕나무·밤나무·옷나무·닥나무 등을 땅의 성질과 때에 맞춰 심도록 권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경공장과 지방 외공장에 칠장을 소속시켜 국가와 관청에 필요한 칠기를 제작·납품하게 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군현에 옷칠이 공물로 분정되었는데, 이를 위해 지방관아는 칠전(漆田)이라는 공전(公田)을 운영하여 옷나무를 재배하고 수액을 채취하였다. 특히 옷칠은 특수물자인 토산희귀자 토공에 속하여 국가의 특별한 관리 속에 생산이 이루어졌다(김현중 2017 : 22~64). 이처럼 옷칠은 삼국시대부터 왕실과 관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운영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재배를 권장하는 중요 관리품목이었다. 이는 고대부터 칠기가 고가의 사치품이자 특정 집단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물건임을 짐작하게 한다.

Ⅲ. 우리나라 고대 옷칠의 기원과 출현

1) 중국과 일본의 옷칠 출현

우리나라 옷칠의 기원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변 중국과 일본의 옷칠 출현 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신석기시대부터 옷칠 자료가 확인된다. 옷나무 원산지가 중국 양자강 중·상류역이라는 점에서(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17 : 20), 오랫동안 중국은 옷칠의 기원지로 인식되었다. 중국의 고대 문헌기록인 『時經』, 『書經』, 『韓非子』, 『鹽鐵論』, 『史記』 등에는 옷칠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실물자료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기원전 6,000년경부터 칠기가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절강성(浙江省) 항주시(杭州市) 과호교(跨湖橋) 유적에서 칠공이 출토되었고(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이보다는 늦은 절강성 여요현(余姚縣) 하모도(河姆渡) 유적에서 주칠완(朱漆碗), 주칠원형칠기(朱漆圓形漆器) 등이 조사되었다(河姆渡遺址考古隊 1980).

이후, 상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시신을 안치하는 목관에 부패를 막고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에 옷칠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²⁾. 정주(鄭州) 명공로(銘功路) 서측 2호묘 바닥에서는 목관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칠편이 확인되었다. 목관은 부식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바닥에는 주사가 깔려 있었다(鄭州市博物館 1965 : 500). 안양 은허 유적에서도 청동기와 함께 복골, 옥기, 골기, 석기 등과 칠기가 조사되었다(河北省博物館·河北省文官外台西發掘小組, 1974 : 45). 동주시대 하남(河南) 고시(固始) 후고퇴(後古堆) 고분은 내곽 외벽에는 흑칠, 내벽에는 주칠을 하였고, 배장갱에서는 칠조(漆雕) 비파, 북, 진모수, 조(俎), 두(豆), 합(盒) 등의 목칠기가 출토되었다(固始後古堆一號墓發掘組, 1981 : 2~6).

무덤뿐 아니라 생활 유적에서도 다양한 목칠기가 확인된다. 서주시대 하남(河南) 신양현(信陽縣) 손채(孫砦) 수산(水産) 유적에서는 요갱에서 도기, 청동기 등과 함께 가래, 두, 국자, 합, 갈고리, 손잡이, 노 등의 칠목기가 확인되었고(安金槐 1998 : 125~126), 호북(湖北) 기춘(圻春) 모가취(毛家嘴) 건축 유적에서는 칠이배가 출토되었다(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湖北發掘隊 1962 : 7). 중국의 경우 대부분 장강 유역을 따라 보존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 목칠기가 확인된다. 특히 중국 칠기의 전성기인 전국시대~한나라대에는 고분에 부장되는 칠기의 양이 급증한다. 이 시기 중국 칠기는 우리나라 옷칠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죠평 초기부터 칠기 자료가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아오모리현[靑森縣] 고레카와(是川) 나카이[中居] 저습지 유적에서 조사된 붉은 옷칠 된 바구니, 나무 빗, 나무 팔찌, 검 모양 목기(木器)와 후쿠이현[福井縣] 토리하마[鳥浜] 패총에서 출토된 주칠 나무 빗, 통형 삼족 용기, 칠채문 토기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기원전 7,000년경으로 추정되는 홋카이도 가키노시마[北海道 垣ノ島] B유적에서 옷칠 흔적이 보고되면서(朝日新聞社 2000), 가장 이른 옷칠 자료가 일본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17 : 26).

이처럼 옷칠의 기원지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초기에는 중국을 기원지로 하여 단선적인 전파론의 우세

2) 옷칠은 아니지만 안양 은허 소둔촌의 부호묘에서도 곱을 덮는 뚜껑에 적색칠을 한 것이 확인된다(郭寶鈞 1951 : 13). 한반도에서도 정백동과 석암리에서 목관에 옷칠을 했던 것이 확인되며, 무령왕릉 목관에도 부패와 부식을 막고 화려함을 더하는 요소로 옷칠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목관에 옷칠을 하는 습속은 최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옷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에서 다원적으로 발전했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옷칠의 기원지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과 일본은 신석기시대부터 옷칠이 출현했다는 것이 공통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옷칠 문화 출현 시점은 우리나라의 옷칠 문화의 기원과 출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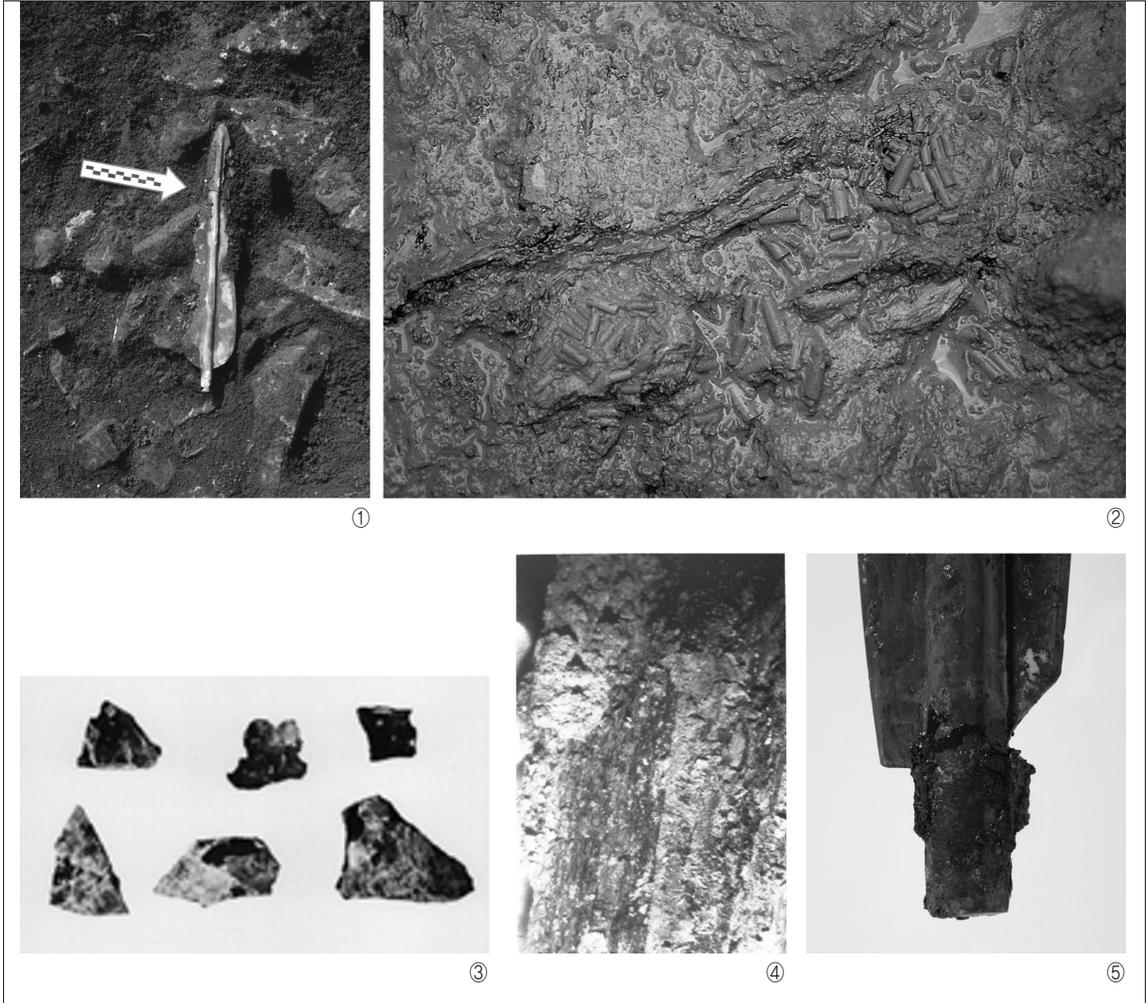
2) 우리나라 옷칠의 출현 시점

중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옷칠 자료는 청동기시대에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 또한 대부분 흔적이나 편으로만 확인된 것이어서 칠기의 정확한 형태, 소지(素地), 제작방식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완형으로 칠기가 확인되는 것은 기원전 1세기 무렵의 창원 다호리유적이다. 이로 인해 초창기 우리나라 옷칠의 기원과 출현에 대해서는 낙랑군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었다(김종태 1976; 김원용·안휘준 2003). 낙랑군 영향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옷칠 자료는 낙랑군 설치 이전부터 확인되나, 본격적인 칠기 확산은 낙랑군을 통한 중국 칠기의 영향이 강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하지만 아산 남성리유적에서 출토된 옷칠편이 낙랑 칠기와는 성분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었고(한병삼·이건무 외 1977 : 5), 원삼국시대 다호리유적 칠기 역시 기종이나 제작방식 등에서 낙랑 칠기와 차이가 뚜렷하기에 현재는 이러한 견해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생설은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옷나무를 근거로 특정 시점에 옷칠 문화가 시작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견해이다. 다만 자생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마다 출현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산 남성리 적석목관묘에서 출토된 옷칠편을 근거로 기원전 3세기(김수철 2007)로 보는 견해, 창원 덕천리 2호 지석묘에서 나온 흑칠(黑漆) 흔적을 근거로 기원전 4세기로 보는 견해(차순철 2008), 다호리유적의 칠기를 근거로 기원전 1세기로 보는 견해(안덕춘 1988), 다호리유적에서 이미 수준 높은 칠기가 등장함에 따라 청동기시대 말기부터 그 기원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이종석 1984), 특정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옷칠 문화의 자생 조건이 한반도에 이미 충분했다는 점에서 세형동검문화 시기 이전에 출현했다는 견해(김은경 2012 : 217~218) 등이 있다.

그러나 기원전 6~5세기에 해당하는 여수 적량동 7호 지석묘에서 옷칠 흔적이 확인되었기에(전남대학교박물관 1993 : 39) 우리나라 옷칠 출현의 시점은 기원전 6세기 이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조현중 2012 : 237). 물론 자생설 역시 청동기시대 이전에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옷칠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청동기시대 확인되는 옷칠편이 비파형동검과 지석묘와 연관이 있다는 점, 초기철기시대에 보이는 옷칠 자료 역시 주로 세형동검 검초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청동기문화권 내에서 옷칠의 독자적 발전 가능성이 무계가 실린다.

여수 적량동유적 이후로 다호리유적 단계까지 옷칠 자료는 빈약한 편이다. 이 시기 옷칠 자료는 지석묘와 적석목관묘에서 확인된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여수 적량동 7호 지석묘에서는 비파형동검과 묘광 바닥석 사이에 흙을 보존처리 하는 과정에서 목질과 함께 옷칠 흔적이 확인되었다. 정확한 형태 등은 알 수 없으나, 비파형동검 목제 검초에 옷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창원 덕천리 2호 지석묘에서는 관옥 주위에서 흑칠이 확인되었다. 흑칠이 관옥 주변에서 확인되었고, 관옥에도 일부 칠이 묻어 있는 점에서 이를 보관하는 그릇에 흑칠을 하였을 가



〈그림 2〉 우리나라 옷칠 출현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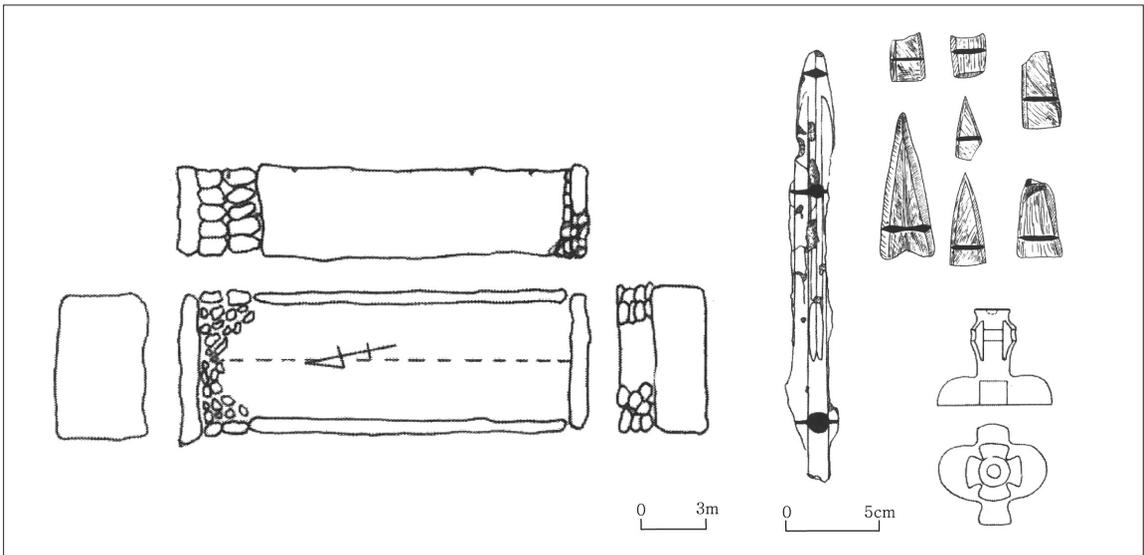
①여수 적량동 7호 지석묘 ②창원 덕천리 2호 지석묘 ③아산 남성리 적석목관묘 ④함평 초포리 적석목관묘 ⑤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

능성이 있다. 이보다는 늦은 시기지만 평양 태성리 11호 목관묘에서도 구슬과 청동 고리 주변에서 이를 보관했던 주철 그릇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과학원 출판사 1959 : 52). 또한 다호리유적과 양지리유적 요갱에서도 칠기를 담은 칠기함이 확인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시부터 귀중품을 담은 칠기를 상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반도 초기 적석목관묘는 주로 호서와 호남지역의 세형동검을 공반하는 유적에서 확인된다. 함평 초포리 적석목관묘에서는 세형동검 주위에 유기물질 윤곽과 함께 옷칠편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세형동검 검초에 옷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 부식된 흙의 양상으로 보아 검초 끝이 뾰족하고 단면이 볼록렌즈형인 검초라고 보았다(국립광주박물관 1988 : 37). 이는 검초 양 끝이 벌어진 검파형검초와는 다른 형태임을 의미한다. 이견무는 이러한 검초를 '검신형검초'로 분류한 바 있다(이건무 1995 : 199). 아산 남성리 적석목관묘에서는 내부 퇴적

토에서 옷칠편이 확인되었는데, 보고자는 목개에 칠해졌던 것이나 동검 검초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한병삼·이건무 외 1977 : 5). 목관 바닥 부분이 아닌 내부 퇴적토에서 출토된 점, 남포 태성리 4호 목관묘와 평양 석암리 205호의 목관에 옷칠이 된 예가 있다는 점에서 남성리 적석목관묘도 목관 혹은 목개에 옷칠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초기철기시대 적석목관묘에서 확인되는 옷칠 자료는 대체로 세형동검 검초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남성리 적석목관묘 역시 검초의 옷칠편일 가능성이 더 크다. 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에는 특이하게 세형동검 경부에 목제 자루와 결합하기 위해 사용한 옷칠이 남아있다. 비록 검초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른 세형동검 외면에 목질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어 옷칠을 한 검초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2)

우리나라 옷칠의 출현 시점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역시 이 시기 옷칠 자료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지역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서흥군 천곡리 석관묘의 옷칠편이다(백련행 1966 : 27~28). 옷칠편은 무덤 바닥 동남쪽에 30cm 정도로 퍼져서 남아 있었고, 그 위에 세형동검과 검파두식이 놓여있었다. 세형동검 좌우로 삼각형석촉이 부장되어 있었다. 출토된 세형동검은 검신 하단부가 결실되기는 하였으나 기부부터 올라오는 각도를 볼 때, 호선형을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능각은 결입부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림 3). 이러한 세형동검은 남한지역 세형동검 I단계로 파악되며 함께 출토된 삼각형석촉 등을 볼 때, 시기는 기원전 4세기경으로 볼 수 있다(오강원, 2020b, 12~20).



〈그림 3〉 서흥군 천곡리 석관묘

이후 목관묘 단계인 평양시 용추동유적(리기련 1967), 남포시 태성리유적(채희국 1959), 은률군 운성리유적(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등에서 옷칠된 검초, 그릇 등이 출토되었다. 목관묘와 검파형검초는 남한지역, 특히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자료와 유사성이 확인된다(이제현·장용준 2020 : 230).

이처럼 자료의 양은 충분하지 않지만,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실물 자료로서 옷칠은 청동기시대부터 확인되며³⁾, 지석묘에서만 출토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흔적만 남아있고, 출토 예가 적어 이 시기부터 옷칠 문화가 보편화되었다고 볼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이 시기는 옷칠의 존재를 인식하고, 정착하는 단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IV. 우리나라 고대 옷칠 문화의 형성과 전파

1) 세형동검문화의 확산과 옷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출현기 옷칠 자료는 지석묘, 적석목관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석묘에서는 옷칠의 출토 사례도 적을뿐더러 흔적만 남아있어 현재까지 양 문화의 관련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석묘문화와 비파형동검문화 시기부터 우리나라의 옷칠 문화가 시작되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지석묘와 비파형동검 연구 성과를 고려하면 한반도의 옷칠 문화가 요령지역과 관련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향후 요령~한반도 내의 옷칠 자료가 축적된다면 옷칠 문화 출현기의 양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비해 세형동검문화 성립기의 주요제로 채택된 적석목관묘는 옷칠 문화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좀 더 용이하다. 이는 한반도 초기 옷칠 자료가 주로 세형동검 검초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 적석목관묘에서 출토되는 검초는 목관묘에서 유행하는 검파형검초와는 다른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 자료가 없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초포리유적에서 보이는 검초 끝이 좁아지는 검신형검초였을 것이다. 시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남성리나 대곡리 역시 검초가 존재했다면 검신형검초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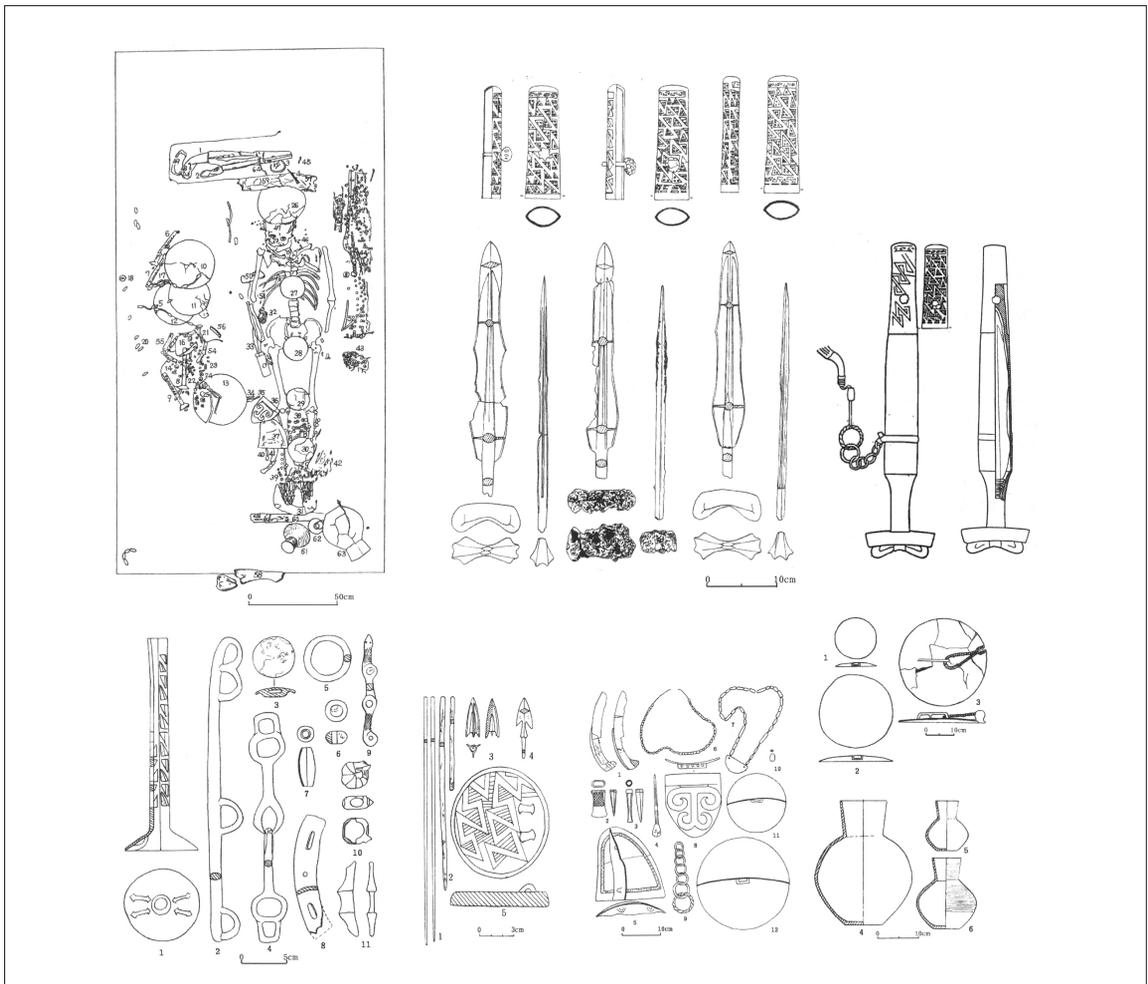
기존의 연구에서 이건무는 검초의 형태를 검신형, 검파형, 사각봉형, 봉상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이건무 1995 : 199~200)⁴⁾. 하지만 검신형으로 발굴 보고된 것은 초포리유적뿐이며⁵⁾, 사각봉형으로 분류한 다호리 24호는 남아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평면 장방형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김민철은 위의 분류 외에 사라리 130호 철검 검초와 佐賀縣 楠比本村遺蹟 SJ137호 출토 검초를 근거로 장조형(長條形)을 새로운 형식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김민철 2021 : 83).

3)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역시 신석기시대까지 옷칠의 기원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신석기시대 밀양 신안 유적 적색마연토기에서 옷칠의 주성분인 우루시올이 확인되었다는(국립김해박물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9)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옷칠 출현시점이 신석기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제기한 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순수하게 우루시올 성분이 추출된 것이 아니라, 우루시올과 유사한 스펙트럼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신석기시대 옷칠의 존재 여부는 향후 실물 자료의 증가와 과학적 분석을 통한 자료 축적이 이루어질 때,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이청규는 검초를 3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는데, 검집에 연결금구가 보이지 않고 검초 끝을 주머니모양의 마구리 장식으로 마감한 것을 I식, 검집에 일정 간격으로 부속구가 있으며, 표면에 투공 장식이 있는 것을 II식, II식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부속구가 간략화되고, 부속구의 투공 장식이 없는 것을 III식으로 분류하였다(이청규 1997 : 43). 구문경도 I식은 이청규와 동일하지만 검파형검초 가운데 목심 자체를 일자식으로 만든 것을 II식, 목심을 곡선적으로 만든 것을 III식으로 분류하였다(구문경 2002 : 7~26).

5)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검초가 평양 울리경마장 2호분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고 한다(이건무 1995 :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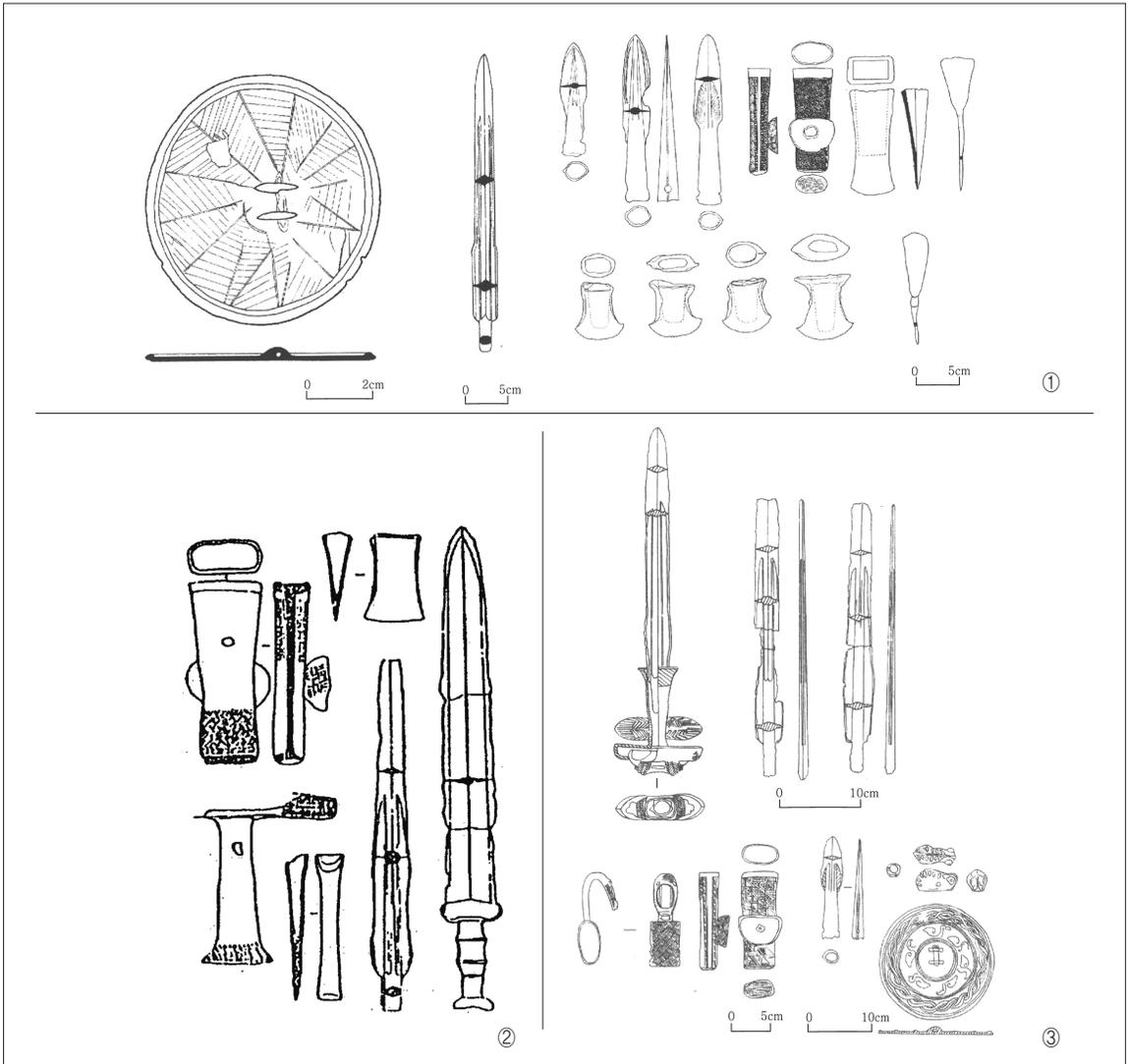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검초 자료가 부속구만 확인된 것이고, 완형의 검초 자료는 부족한 상황에서 형식을 너무 세분하면 향후 검초 연구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이청규와 구문경 모두 지적한 것처럼 형태적으로는 정가와자유적의 직선적인 검초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곡선적인 검파형검초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목초의 형태, 즉 직선적인 검신형과 곡선적인 검파형만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⁶⁾. 물론 선행 연구자들이 검토한 것처럼 검파형검초도 금속 부속구의 문양 시문 방식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검신형 역시 평면 형태나 검집 끝 마감 장식의 형태에 따라 세분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이러한 검초의 형식분류나 변천 과정은 다른 지면을 빌어 논의하고자 하고, 여기서는 옷칠 문화의 확산이라는 큰 주제가 중심이기에 검신형에서 검파형이라는 큰 변화 과정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4〉 정가와자 6512호 목곽묘

6) 이외에 봉상형검초는 다호리 1호와 태성리 6호에서만 확인된 특수한 형태이다. 출토량도 적을뿐더러 세형동검과 철검의 검집이 아닌 짧은 단검의 검집이다. 따라서 봉상형검초를 칠초동검·칠초철검과 같은 선상에서 검토하는 것보다 다른 형식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검신형검초는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검초 자료로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만한 검초가 심양 정가와자 6512호 목곽묘에서 출토되어 참고가 된다. 정가와자유적에서 출토된 검초는 피장자 오른쪽 허리에 정가와자식 비파형동검과 함께 조사되었다⁷⁾. 목제 검초 부분은 부후되어 흔적만 남아 있었다. 복원된 자료를 참고하면 형태는 직선적이었으며, 길이는 15cm, 너비는 5.2cm 정도이다. 검초 끝(秘)은 직사각형의 청동제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3점의 비파형동검과 세트를 이루듯이 검초 끝 장식 3점이 함께 조사되었다.(그림 4) 검초 상부에는 청동못으로 검초 끝 장식과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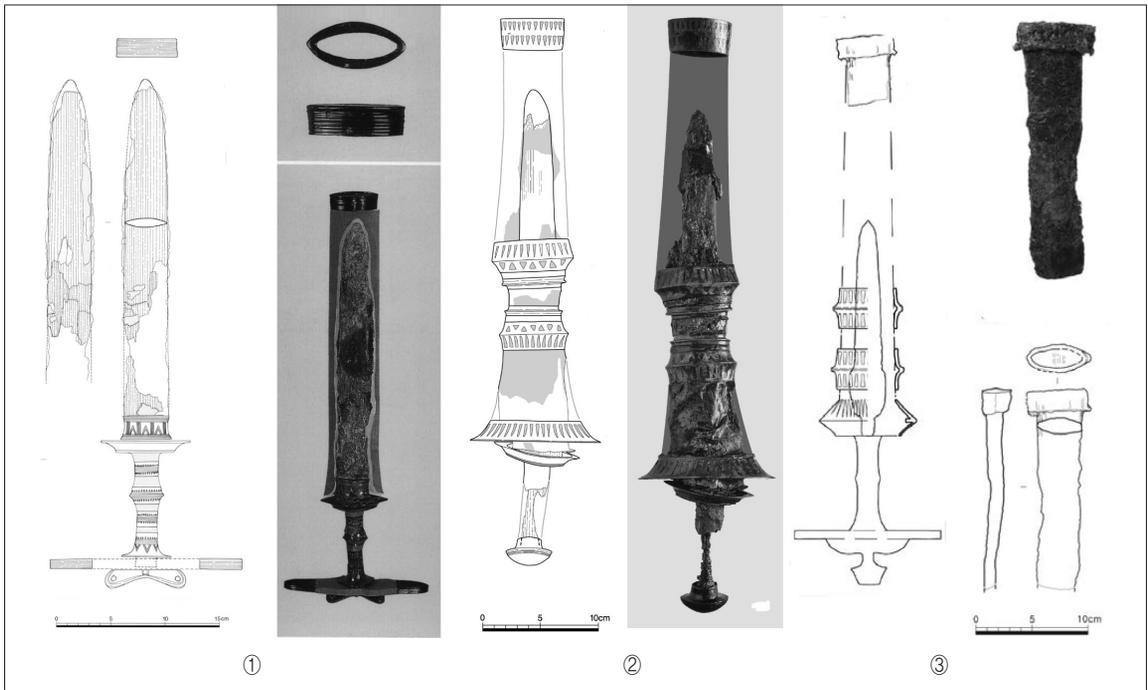
<그림 5> 요령지역 검초 검집 끝 장식(축척 부동)
 ①오도령구문 적석묘 ②서가구 석곽묘 ③유가초 석관묘

7) 정가와자식 비파형동검은 돌기부가 둔화되고, 검날의 곡인률이 낮아져 심이대영자문화의 비파형동검에 비해 세장화된 형식이다(오강원 2006 : 161~172)

이와 같은 검초 끝 장식은 정가와자유적 뿐 아니라 본계 유가초 석관묘, 집안 오도령구문 적석묘, 장해 서가 구 석곽묘 등에서도 출토되었다.(그림 5) 대체로 정가와자식 비파형동검보다 후행하는 변형 비파형동검 단계로 기원전 3세기에 해당하는 유적이다(오강원 2006 : 280~289). 이 유적들의 검집 끝 장식은 정가와자 출토 검집 끝 장식에 비해 문양이 상대적으로 세밀하지 못하다. 목제 검초 부분은 부후되어 남아 있지 않지만 형태는 정가와자유적의 복원된 검초와 유사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세형동검문화는 요령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를 전신으로 하여 한반도에 형성된 청동기 문화이다(이건무 1994 : 133). 세형동검문화의 형성에 대해서는 자생설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심양의 정가와 자유형의 비파형동검문화가 한반도 중서부지역으로 직접 파급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이건무 1994 : 167; 조진선 2005 : 213~218; 오강원 2020a : 243). 이는 정가와자유형의 청동기가 세형동검 성립기 유적인 예산 동서리, 아산 남성리, 대전 괴정동, 부여 연화리 등지에서 보인다거나(오강원 2020a : 239), 이 시기 금강 유역에서 유행하는 적석목관묘의 전통을 정가와자 656호와 6503호 무덤 등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박진 일 2021 : 74~75) 뒷받침된다.

이런 점에서 정가와자 6512호 출토 검초는 검파형검초 이전 호서와 호남지역 적석목관묘 출토 검초 형태를 추정하는데 매우 유의미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건무가 ‘검신형’로 명명하였던 것도 초포리유적의 옷칠 흔적만을 근거로 하였기에 정확히 검초 끝이 뾰족한 형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가와자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그림 6〉 영남지역 철초철검

①경주 사라리 130호 ②경산 양지리 1호 ③울산 교동 1호

검초 끝 장식처럼 검초 끝을 다른 것으로 마감하는 방식이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이보다는 늦은 시기지만 경주 사라리 130호, 울산 교동 1호,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에서도 검초 끝을 금속구로 마감하는 검초가 확인된다.(그림 6) 다만 요령지역의 검집 끝 장식은 길쭉한 세장방형인 반면, 영남지역의 검집 끝 장식은 검파형검초의 부속구와 유사한 납작한 형태이다. 납작한 검집 끝 장식을 공반한 이 검초들은 초하부에 부속구가 확인되기도 하며, 초하부가 곡선적인 검파형검초를 띠기도 한다(그림 6) 또한 모두 철검검초라는 공통점도 있는데, 이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검신형검초의 전통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검파형검초의 새로운 제작 방식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초기 검신형검초 역시 정가와자유적의 검초처럼 검집 끝을 금속구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호서와 호남의 적석목관묘 출토 검초와 정가와자 6512호 검초는 전형적인 검파형검초가 아닌 직선적인 형태의 검초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확인된다. 양 지역 청동기문화의 직접적인 교류를 감안하면 한반도 적석목관묘 출토 검신형검초는 정가와자유적 검초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 중서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요령지역에서 확인된 옷칠 자료가 많지 않고, 정가와자유적의 검초에 옷칠이 되어 있다는 보고는 없기에 한반도 남부 검초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목제 유물과 옷칠의 잔존은 보존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요령지역의 옷칠 자료가 빈약한 이유일 수 있다. 오히려 세형동검문화의 파급 경로, 출현기 옷칠이 세형동검 검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옷칠의 기원을 요령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요령지역 역시 옷칠 자료가 좀 더 보강되고, 비파형동검 혹은 세형동검 단계의 검초의 양호한 자료가 축적되기를 기대해본다.

2) 목관묘문화의 확산과 옷칠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춘 칠기들이 등장하는 것은 목관묘 단계부터이다. 이 시기 칠기는 소지, 제작방법, 옷칠의 횡수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형태나 칠도막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창원 다호리, 광주 신창동, 성주 예산리, 대구 팔달동, 봉무동, 학정동, 경산 양지리, 김해 양동리, 안동 가곡리, 경주 사라리, 경주 탑동, 경주 죽동리, 충주 호암동, 울산 하대, 울산 다운동, 울산 교동, 전주 동산동, 나주 구기촌, 서산 동문동, 함평 마산리, 서천 군사리, 서산 예천동 등 전국적으로 확인된다⁸⁾.

일부 유적을 제외하면 목관묘, 그것도 영남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⁹⁾. 이 유적들에서는 도태칠기(陶胎漆器)와 남태칠기(藍胎漆器)도 일부 제작되나, 대부분 나무 소지 위에 그대로 옷칠을 한 흑칠목심칠기(黑漆木心漆器)가 중심이다. 그 가운데 검파형검초(동검, 철검), 칠두, 칠부채 등의 집중적으로 부장되며, 이전에

8) 물론 일부 유적은 옷칠 자료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검초 부속구만 출토되고 있어 실제 옷칠이 된 검초였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까지 발굴 자료를 볼 때, 검초에는 예외 없이 옷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칠기 출토 유적으로 간주한다.

9)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호서와 호남지역의 적석목관묘와 토광묘에서도 검파형검초 부속구 자료가 확인되고 있어 향후 영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서도 칠기의 출토 예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발굴 상황을 놓고 보면 영남지역 목관묘에서 칠기의 부장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영남지역이 한반도 고대 칠기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로 볼 수 있다.

〈표 1〉 원삼국시대 영남지역 목관묘 출토 칠기 유물

| 기종 | 유적 | 다호리 | 예산리 | 양지리 | 팔달애 | 가곡리 | 신대리 | 평리봉 | 성곡리 | 지산동 | 영전리 | 가야의숲 | 임곡리 | 조양애 | 사라리 | 양동리 | 평리봉 | 팔달애 |
|-----|----------|-----|------|-----|-----|-----|-----|-----|-----|-----|-----|------|-----|-----|-----|-----|-----|-----|
| | | 무기류 | 칠초동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칠초철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칠초동모 | | | ● | | | | | | | | | | | | | | |
| | 과초 | | | ● | | | | ● | | ● | ● | | | | | | | |
| | 활 | ● | ● | | | | | | | | | | | | | | | |
| | 화살통 | ● | | | | | | | | | | | | | | | | |
| | 철촉 | | ● | | | | | | | | | | | | | | | |
| | 철모 | ● | | | | | | | | | | | | | | | | |
| | 갑옷 | ● | | | | | | | | | | | | | | | | |
| 그릇류 | 두 | ● | ● | | | | | | ● | | | | | | | | | |
| | 장경호 | ● | | | | ● | | | | | | | | | | | | |
| | 원통형 칠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머니호 | ● | ● | | | ● | | | | | | | | | | | | |
| | 대부소호 | | ● | | | | | | | | | | | | | | | |
| | 뚜껑 | ● | ● | | | | | | ● | | | | | | | | | |
| | 잔/컵 | ● | | | | | | | ● | | | | | | | | | |
| | 완 | | ● | | | | | | | | | | | | | | | |
| | 우각형 파수부호 | ● | | | | | | | | | | | | | | | | |
| | 칠반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목제함 | ● | | | | | | | | | | | | | | | | |
| | 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붓 | ● | | | | | | | | | | | | | | | | |
| | 철부 | ● | | | | | | | | | | | | | | | | |
| | 따비 | ● | | | | | | | | | | | | | | | | |
| | 자귀 | | | ● | | | | | | | | | | | | | | |
| | 겸형칠기 | ● | | | | | | | | | | | | | | | | |
| | 도자 | ● | | | ● | | | | | | | | | ● | ● | | | |
| | 신발 | ● | | | | | | | | | | | | | | | | |
| | 국자 | ● | | | | | | | | | | | | | | | | |
| 칠겉이 | ● | | | | | | | | | | | | | | | | | |
| 현악기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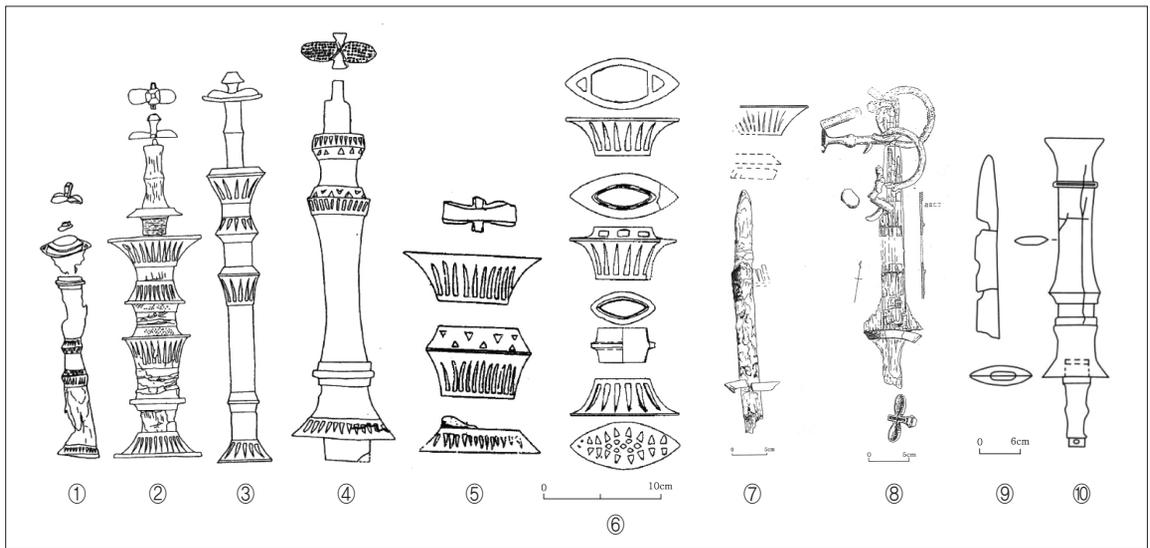
비해 수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간의 분석 자료를 통해 보면 옷칠은 대체로 2~6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목관묘 단계부터 급증하는 칠기 자료를 볼 때, 한반도 옷칠 문화의 확산이 목관묘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남부, 특히 영남지역으로의 옷칠 문화 확산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목관묘의 확산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영남지역 목관묘 등장에 대해서 요깁을 근거로 중국 남방과 연관 짓는 주장도 있고(이재현 1995), 한반도 서남부의 마한 군집 목관묘가 진·변한 군집 목관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한다(박진일 2021 : 78). 하지만 한반도 서남부와 동남부지역의 목관묘는 청동기만 부장하는 목관묘의 존재 차

이, 철기 조합 구성, 토기 조합 등에서 차이성도 뚜렷하다(박진일 2020 : 62; 김민철 2019 : 138~144). 또한 목관묘단계 서북한지역과 영남지역은 공히 한경이나 거마구 등 한식 유물이 많이 부장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미야모토 오사무 2010 : 335; 김용성 2016 : 31). 그로 인해 영남지역의 목관묘 계통을 중국 동북지역과 서북한지역에서 파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이주현 1994; 김용성 2016; 김민철 2019).

현재까지 영남지역의 가장 이른 시기의 목관묘는 김천 문당동유적과 칠곡 심천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단독묘로 중서부지역에서 영남지역으로 오는 접경지대에 분포한다. 초기 단독묘로 조성되던 목관묘는 기원전 2세기 초엽에 경주 월성동과 경산 입당동으로 확산되어 군집화 경향을 보이며, 이후 낙동강 하류까지 확산된다(김민철 2019 : 130~138).

초기 목관묘의 계통이 서북한지역이라면 한반도 남부 옷칠 문화도 서북한지역에서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서북한지역의 목관묘와 철기 양상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평양 용추동, 남포시 태성리, 은률군 운성리 목관묘에서 철기가 출토되었다. 용추동 목관묘와 태성리 8호·10호 목관묘에서는 검과형검초가, 태성리 6호 목관묘에서는 봉상형철초가 출토되었다. 이외에 목관묘와 지표수습품에서도 검과형검초와 부속구가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傳평양 출토품, 정백동 1·37·88호, 정백동 채토장, 석암리 219호 등이 있다(그림6).



<그림 7> 북한지역 검초 자료

- ①1. 정백동 37호 ②정백동 고분 ③석암리 219호 ④낙랑군 ⑤정백동 88호 ⑥정백동 채토장 ⑦태성리 8호 ⑧태성리 10호 ⑨용추동 목관묘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목관묘 이전 단계에 서북한지역의 옷칠 자료가 한반도 남부보다 빠르지 않다는 점, 서북한지역에서 철기가 출토되는 목관묘는 한식 철기와 S자형 재갈머치 등으로 볼 때 그 연대가 빨라야 기원전 2세기 중엽(황기덕 외, 1971 : 31~35), 혹은 1세기경이라는 점이다(오강원 2013 : 191). 이는 영남지역 철기 출

토 목관묘와 거의 같은 시기이거나 오히려 늦다¹⁰⁾. 다만 칠기 출토 이외의 목관묘는 서북한지역이 영남지역보다 빠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과 서북한 지역의 발달된 검초 자료, 칠기를 제외한 다른 물질문화 파급 경로를 고려하면 서북한지역을 영남지역 목관묘단계의 칠기 전파 기원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북한지역에서 목관묘 단계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칠기가 목관묘 단계부터 성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심양의 정가와자유형은 기원전 6~4세기경에 요령지역에서 무기류, 공구류, 장신구류, 거마루규, 위 세류 등을 포함하는 최상급의 청동기 부장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연나라 장수 진개의 침입으로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되기 전까지 정가와자유형이 고조선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크다(오강원 2013: 197~205). 진개의 동진 이후, 기원전 3세기 전국 연나라 문화는 요서를 포함하여 요동 일부 지역까지 확산된다. 이 시점에 서북한지역 역시 세형동검과 함께 칠기문화가 이전의 신흥동유형을 대체하며 등장하게 된다(오강원 2013 : 189~193). 옷칠 문화 역시 이 과정에서 서북한지역으로 함께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영남지역 목관묘 단계의 옷칠 문화는 요령지역에서 서북한지역으로 이동한 고조선 세력의 일부가 다시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면서 확산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남지역 목관묘단계의 옷칠 문화를 고조선의 옷칠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이유이다.

물론 목관묘 단계의 칠기, 구체적으로는 다호리유적의 칠기에서 낙랑 칠기의 영향이 언급되기도 한다. 예컨대 다호리 칠기 제작기법¹¹⁾이 한나라 혹은 낙랑 칠기의 제작방식과 유사하다는 점, 다호리 1호 출토 원형두가 평양 정백동 127호분에서도 출토되었다는 점, 1호 출토 유개통형칠기가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동효한묘(東效漢墓) 출토 도창(陶倉)과 유사하다는 점, 다호리유적에서 중국 한경 등 교류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유물 등이 출토된다는 점 등이다(김은진 2005 : 76~84). 또한 청주 오송 유적에서는 중국과 낙랑 칠기의 대표적 기종인 이배가 출토되기도 하였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 442). 비록 옷칠이 되어 있지 않은 토제이배이지만 토제이배는 평양 남정리 53호에서도 출토되고 있어(황현성 외, 2013 : 7), 당시의 낙랑 칠기의 영향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양 지역 옷칠 문화의 유사성과 함께 상이성도 부각된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목관묘단계의 칠기는 흑칠목심칠기가 중심이며¹²⁾, 일부 붉은색으로 거치문과 사선문을 새기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문양이 없다. 이에 비해 낙랑 칠기는 흑칠기도 존재하나, 모시와 삼베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협저 칠기가 많다. 또한 붉은 색, 황색, 녹색, 갈색, 청색 등 다양한 색을 이용해 능형, 톱니, 물결, 구름, 새, 짐승, 용, 괴인 등의 무늬를 넣는다. 이외에도 협저칠기의 전통으로 직물의 울퉁불퉁한 면을 메우기 위해 두꺼운 바탕칠[下地]을 하는 특징이 있고, 중국 전국시대~한나라 칠기의 대표적 기종인 칠이배(漆耳杯)와 칠반(漆盤)의 수량이 우세하다. 즉 낙랑 칠기의 대표 기종인 칠이배와 칠반의 부재, 바탕칠과 칠화기법의 부재 현상은 양 지역의 상이성을 더욱 보여주는

10) 호서와 호남지역의 적석목관묘와 완주, 신평 일대의 목관묘가 영남지역으로 파급되면서 옷칠 문화도 함께 파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11) 손으로 깎는 방식, 물레를 사용하는 방식, 판으로 짜 맞춘 방식을 들 수 있다(이건우 외 1989 : 5~53).

12) 김해 가야의 숲 3호 유적에서는 목심저피 원통모양칠기가 확인되었다. 다호리유적을 비롯하여 이 시기 유적들이 대부분 목심칠기가 중심인 점을 미루어 볼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다만 이 유적 근처에서 당시 삼베나 모시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2006 : 151~157; 박윤미 2020 : 74). 모시나 삼베의 생산이 목심저피칠기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초기철기~원삼국시대에는 목심저피칠기나 협저칠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³⁾.

오히려 낙랑 칠기의 영향은 삼국시대부터 확인되는데, 이 시기부터 낙랑 칠기의 대표적인 제작 기술인 바탕칠과 칠화기법이 성행한다. 바탕칠은 삼국시대부터 비중이 늘어나는 목심저피나 협저칠기 제작과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인데, 바탕칠이 목태 위를 감싸는 직물의 눈을 매우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탕칠의 성분 역시 낙랑 칠기와 유사한데, 양 지역 모두 골분과 토분을 혼합한 바탕칠을 사용하였다(이용희 2010 : 63~67). 칠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칠화기법 역시 삼국시대부터 칠기에 동물이나 구름 등을 그려 넣는 방식으로 등장한다. 또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석촌동 고분군과 원주 법천리 유적, 부여 쌍북리 유적 등에서 낙랑칠기의 대표 기종인 칠이배와 칠반이 출토된다. 이외에도 무령왕릉 두침, 죽좌나 부여 능산리 출토 채색 칠기 등에 보이는 금박 장식도 낙랑 칠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낙랑 칠기는 원삼국시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다가 상대적으로 삼국시대부터 강하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남지역 목관묘단계의 옷칠 문화 역시 낙랑군 설치 이후, 급증한 것이 아닌 낙랑군 설치 이전 고조선 옷칠 문화가 한반도 남부로 파급되면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곧 적석목관묘단계에 요령 지역에서 해로를 거쳐 한반도 중서부로 파급되었던 것을 한반도 옷칠 문화의 1차 파급이라고 한다면 서북한 지역에서 내륙을 통해 한반도 동남부로 파급되었던 것을 2차 파급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적어도 옷칠 문화 속에서 이러한 두 차례의 걸친 파급은 검초 제작 방식 차이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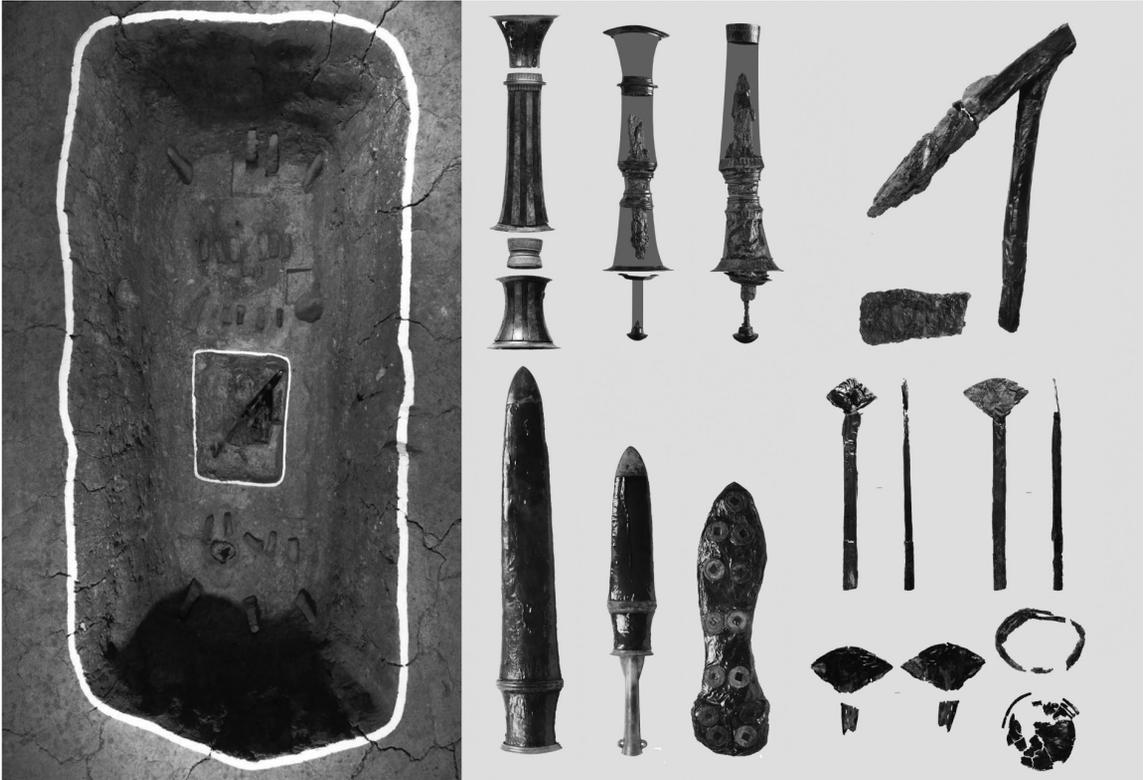
3) 양지리유적 칠기의 특징과 의미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대 옷칠 문화에서 양지리유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경산 양지리유적은 금호강 중류 북안에 위치하여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구가 조사된 복합유적이다. 이 가운데 칠기는 II-5구역 1·2호 목관묘에서 출토되었다. 1호 목관묘는 구유형 통나무 목관으로 다른 목관묘군에서 남동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단독으로 조성되었다. 칠기는 피장자 오른팔 근처에서 칠초동검 2세트, 칠초철검 2세트, 피장자 상반신에 칠부채 3점, 요갱에서 칠초동모 2세트, 철과초¹⁴⁾, 자귀가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피장자 머리 부근과 요갱에 칠기함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되었다. 도자에도 유기물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요갱 칠기함의 잔존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호 목관묘는 나무 목개 위에 천석을 보강한 적석목관묘이다. 칠기는 원통형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세형동검과 동과가 출토되었으나, 검초나 과초가 조사되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무기류의 칠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동안 조사된 예가 없는 비파형동모초와 오수전으로 장식한 과초가 출토된 점이 시선을 끈다.

양지리 출토 칠기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파형동모의 모초의 존재이다. 모신이 비파형을 띠는 점에서 그동안 조사 예가 없어 형태를 추정할 수 없었던 비파형동검 검초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13) 다호리유적을 포함한 목관묘단계의 와질토기는 이전 무문토기의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한 것이라는 점도(박진일 2016 : 132) 양 지역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4) 보고서에는 동과초로 보고되었으나, 동과를 삼입하기에는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점, X-선 촬영을 통해 본 재질이나 과초 안의 유물의 형태를 볼 때 철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김민철, 2020b : 7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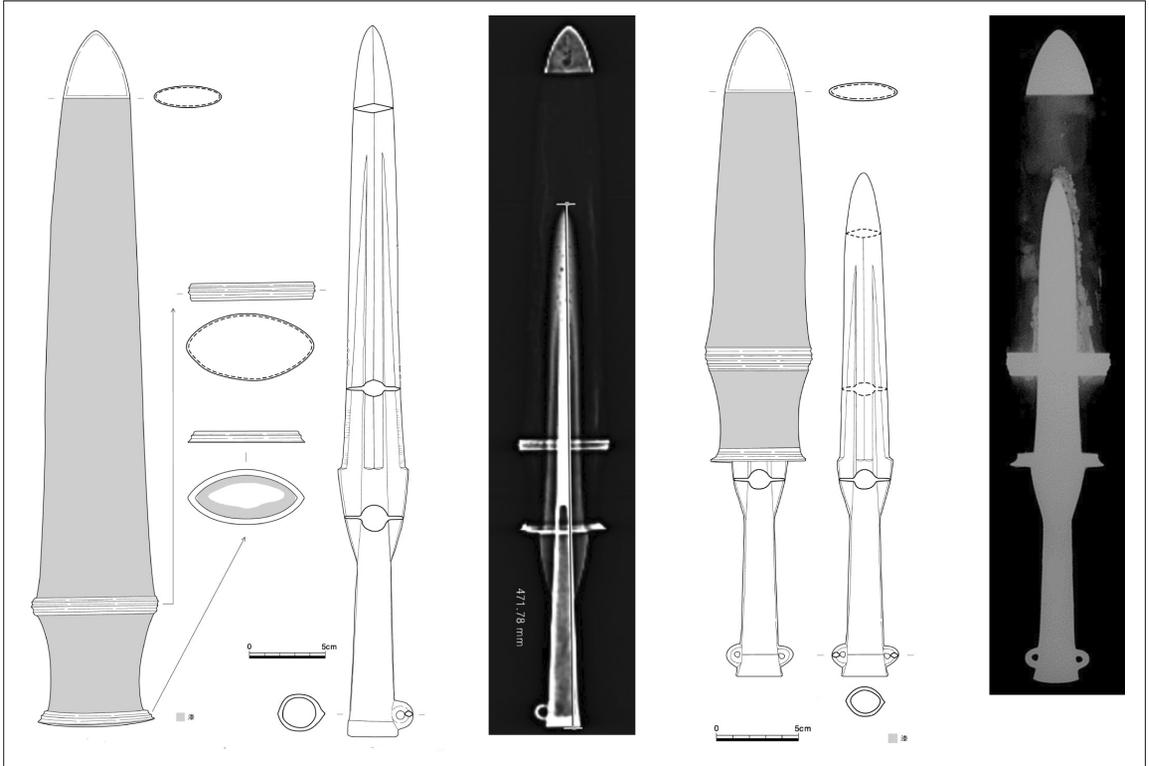


〈그림 8〉 양지리유적 출토 철기

청동기시대 부장품으로서 비파형동검의 위상을 고려하면 검초가 함께 제작되어 부장되었을 것이다. 양지리에서 출토된 비파형동모초는 세형동검의 검파형검초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이다. 즉 검초 양 끝이 벌어지는 형태가 아닌 직선적인 형태라는 점, 검초 끝을 금속구로 마감한 점 등에서 정가와자유적의 검초와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비파형동검 검초도 검파형이 아닌 직선적인 검신형이었을 가능성이 컸음을 알려준다.

다만 양지리유적 출토 비파형동모초는 청동제의 봉(捧)과 초하부 금속 연결구가 있으며, 그 사이가 곡선적인 검파형검초 형태를 띠는 점에서 일정 부분 검파형검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양지리유적은 전형적인 검파형검초를 부장하는 단계였기에 비파형동모초는 기존 검신형으로 제작하면서도 일정 부분 검파형검초의 제작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이 양지리 출토 칠초철검이다.(그림 6) 앞에서 다룬 것처럼 초하부는 검파형을 띠지만 검집 끝은 금속구로 마감하고 있다. 비파형동모초와 같이 삼각형 끝 장식은 아니지만 금속구로 검집 끝을 마무리하고, 초하부는 금속 부속구를 활용해 검파형으로 제작한 양쪽의 제작 기술이 모두 반영된 사례라고 생각된다. 교동 1호 역시 목초의 형태는 명확하지 않지만 직선적인 검집 끝 장식과 검파형검초의 부속구가 함께 보이는 것도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양지리유적의 비파형동모초는 초기 세형동검 유적인 직석목관묘에서 검신형검초 형태를 띠던 것이 목관



〈그림 9〉 양지리유적 출토 비파형동모와 모초

모 단계에 들어서면서 검파형검초로 형태적 변화가 변화했음을 유추하게 하며, 검신형과 검파형검초의 제작 기술이 접목되는 모습도 추적하게 하는 자료이다.

그렇다면 왜 비파형동검단계의 검신형검초가 세형동검단계부터 검파형검초로 변화된 것일까? 검초의 형태만 보자면 검신형검초와 같은 직선적인 형태가 동검의 형태를 볼 때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검신형에서 부자연스러운 검파형으로 형태를 바꾼 이유가 필요한데, 크게 기능적인 측면과 장식적인 측면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검파형검초 내부를 X-ray로 살펴보면 검 크기에 비해 불필요한 공간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검초의 외형 변화가 기능적인 측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장식적인 면에 집중하여 검초의 형태가 재고안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세형동검문화의 확산은 요령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의 위축과 쇠퇴 속에 이루어졌다. 한반도에서 세형동검문화가 확산되는 시기에 요령지역은 이미 연계 철기문화가 확산되고 있었다. 더욱이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세형동검은 초기철기시대까지 장기간 부장되며, 철기와 공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양지리유적과 다호리유적 등과 같이 동일 유구 내에서 철초동검과 철초철검이 공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 검파형검초가 등장하는 기원전 2세기 경은 한반도 남부에서 저온 단야공정의 철기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김상민 2021 : 64~67). 그렇다면 왜 철기라는 신문물이 유입된 이후에도 세형동검과 검파형검초

가 지속적으로 부장되었을까?

이는 철기문화가 세형동검문화권 내에 파급된 후에도 여전히 세형동검이 지배자의 권위를 과시하는 물건으로 는 상당 시간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임을 나타낸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검파형검초는 세형동검의 위세 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장식적인 효과를 더해 화려하게 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물 이 정백동과 다호리, 양지리, 사라리유적 등에서 출토되는 검파형검초이다. 이곳들에서 출토된 검초는 단순 목 제검초가 아닌 금속 부속구를 활용하여 검초를 제작하였고, 금속 부속구를 삼각형, 혹은 사각형 문양으로 음각 하거나 투창, 혹은 사선문과 거치문을 새겨 장식하였다. 이외에도 양지리, 평리동, 입당동, 다호리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방향의 세장한 청동판을 부착하여 검초를 장식하기도 하였다(김민철 2020a : 4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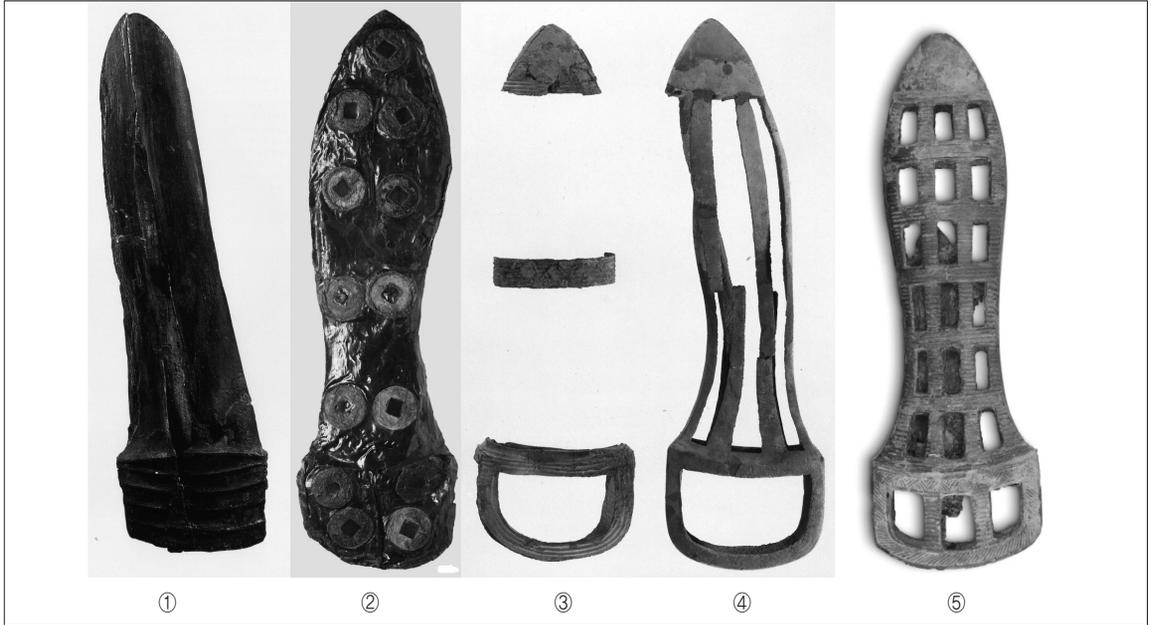
결국 검파형검초는 철기 문화가 파급되는 과정에서 세형동검집단이 위세품인 세형동검을 과시하기 위해 특별 히 제작한 새로운 형태의 검초인 것이다. 이는 검파형검초의 비실용적 부분의 확대, 세밀한 문양을 통한 장식 효 과의 증대, 철기의 보급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무덤에 부장되는 점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철기 시대 지식묘 집단이 철기문화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묘 상석의 거대화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를 결속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모습과도 연결된다(이제현 2021 : 118).

다음으로 주목되는 유물은 과초이다. 그동안 과초는 영천 용전리, 대구 평리동, 지산동, 평양 정백동 등에서 확인되었다. 세형동과 과초로 추정되는 정백동 과초만이 직선적이고, 나머지 철과초로 추정되는 것들은 과초 중 앙부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형태이다.(그림 10) 그러나 양지리유적 출토 과초는 나머지 용전리, 평리동, 지산동 과초와는 또 다른 차이점이 확인된다. 나머지 과초는 청동으로 과초 뼈대를 이룬 반면, 양지리 과초는 청동제의 뼈대가 확인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목재로 과집을 제작하였다. 또한 양지리유적 과초는 전면에 옷칠을 하고, 앞 뒤로 26개의 오수전을 붙여 장식하였다. 장식적인 효과가 극대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장식적 측면의 강화는 과초의 삽입부의 독특한 위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양지리 과초는 우측면 하단에 삽입 부가 있고, 나머지 좌측부와 하단부는 목재가 부후된 탓인지 부착되어 있다. 삽입부의 위치로 인해 과를 꺾어서 삽입했을 것이기에 소형이거나 중원식동과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이은경 2021 : 756). 그러나 X-ray 상에서 과의 경부가 매우 짧아 중원식동과로 보기 어려우며, 중원식동과라 하더라도 실제 우측면 하단을 통해서 삽입이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다. 소형일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잔존 길이 13.5cm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X-ray상처럼 과가 바르게 삽입될 수 있었는지 역시 의문이다.

오히려 오수전 26개를 붙여 장식한 측면을 고려할 때, 단순 부장품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철과와 과집을 따로 제작하여 삽입한 것이 아니라, 철과 위에 바로 목재 과집을 결합하여 옷칠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본다. 이로 인해 다른 과집과는 달리 청동이 뼈대를 이루고 앉았으며, 오수전을 과집 표면에 과도하게 붙여 장식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본다.

이외에 칠부채, 원통형칠기, 칠기용기로 추정되는 칠편, 자귀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의 조사 사례를 보면 목관 묘단계 칠기는 칠초동검·칠초철검·활·철모·갑옷 등의 무기류, 두(豆)·주머니호·장경호 등의 그릇류, 철 부·파비·철도자 등의 생활용구 등이 출토된다. 이 가운데 위세품의 성격이 강한 칠초동검·칠초철검과 칠부



〈그림 10〉 한반도 출토 과초

①평양 정백동 ②경산 양지리 ③대구 지산동 ④대구 평리동 ⑤영천 용전리

채가 주요한 부장 세트를 이루었다. 철부채는 장례 과정에서 복안의 의미를 지니며(오광섭·정현석 2015 : 9), 피장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물건이었다. 원통형철기는 석암리 205호분에서 손잡이가 달린 것을 근거로 술을 담는 기물로 추정하기도 하며(김은진 2005 : 33), 고대 목간이나 죽간과 같은 책을 담는 용도로 해석하기도 한다(신용민 2006 : 184~185). 철두는 양지리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禮記』를 참고하면 제사에서 나뭇이나 고기를 담는 제기이다¹⁵⁾. 실제 철기가 제기 등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은 중국 고대 문헌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韓非子』에는 중국 우임금 때부터 제기에 옷칠을 하였다고 기록되었으며¹⁶⁾, 『管子』에서는 옷칠을 사람의 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죽은 자를 보낼 때의 필수품으로 기재하고 있다¹⁷⁾.

자귀와 같은 농공구류의 옷칠을 한 예는 양지리유적을 제외하면 다호리유적이 유일하다. 다호리유적에서는 철부 자루와 따비, 겸형철기 등에 옷칠을 하였다. 모든 무기류에도 하기 어려웠던 옷칠을 농공구류까지 했던 것은 당시 양지리와 다호리 집단이 옷칠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었거나, 다양한 철기를 부장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처럼 철기는 주로 제기와 위세품에 관련된 기물에 이루어졌으며, 철기 부장은 곧 피장자의 위세와 신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철기 부장 양상에서 기종의 다양성은 다호리, 양지리, 예산리유적 정도에만 한정된 현상이며, 그 외의 유적들은 대부분 철초철검과 철부채만 부장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15) 물론 삼한시대 굽다리접시는 주거지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일부는 실생활 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심수연 2011 : 120).

16) 『韓非子』, 第十篇, 十過7. “禹作爲祭器 墨漆其外 而朱畫其內…”

17) 『鹽鐵論』, 『本義』, 第一

드러난다. 물론 잔존 환경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으나, 칠기가 잔존하는 유구 내에서도 부장량과 기종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볼 때, 단순 잔존 환경의 문제만으로도 돌릴 수 없다.

이와 같은 칠기 부족 현상, 혹은 칠기 기종의 제한적 부장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가정할 수 있다. 첫째는 칠기의 원활한 제작과 공급이 어려웠을 가능성, 둘째는 일부 유적에서는 특정 기종만을 선호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후자의 가능성은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특정 기종을 선호했다는 것을 밝혀내기 어렵고, 더욱이 칠기의 기능성이나 미적 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낮다.

웃칠의 희소성으로 칠기 생산과 소비 중심지를 제외하면 칠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이 시기 칠기와 함께 부장되는 흑색마연토기의 존재는 칠기의 공급 부족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이제현·장용준 2020 : 245~246). 다호리유적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두가 칠기와 흑색마연토기 모두에서 확인되었고, 예산리 31호 목관묘에서는 다호리 1호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대각에 돌대가 둘러진 칠두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장각고배가 출토되었다(그림 11). 이러한 양상은 결국 모든 토기에 웃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재로서 흑색마연토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¹⁸⁾.



〈그림 11〉 흑칠기와 흑색마연토기

①창원 다호리유적 칠기 ②창원 다호리·성주 예산리유적 흑색마연토기(상: 다호리 34호, 하: 예산리 31호)

18) 백제의 흑색마연토기를 웃칠의 모방 효과의 가능성으로 보기도 한 연구가 있다(박순발 1999 : 5). 물론 반대로 흑칠기가 재래의 토기와 일부 청동제기로부터 유래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신대곤 2009 : 41). 하지만 중국에서 흑도의 전통이 보이는 용산문화보다 흑칠기가 더 이른 시기에 제작된 점에서 흑칠기를 모방하여 흑색마연토기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원삼국시대 철기의 제한적 부장은 철기의 원활한 제작과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상이며, 반대로 철기의 높은 부장량은 해당 유적 집단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옷칠 문화상으로는 보자면 경산 양지리유적과 창원 다호리유적은 당시 진한과 변한의 유력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그동안 축적된 우리나라 고대 철기 자료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옷칠 문화의 기원과 확산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옷칠 자료는 청동기시대 비파형동검문화와 지석묘문화와 연관되어 처음으로 확인되지만 대부분 흔적만으로 남아있어 명확한 양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옷칠 문화도 신석기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은 있다. 향후 선사시대 옷칠 문화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옷칠 문화의 본격적인 추적이 가능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는 요령지역과 서북한지역에서의 1, 2차에 걸친 옷칠 문화의 확산 속에서 형성되었다. 1차는 심양 정가와자유형에서 한반도 중서부로 직접 파급된 것으로 적석목관묘 출토 세형동검의 검초인 검신형검초가 그 주요한 증거이다. 2차 파급은 서북한지역의 목관묘와 함께 영남지역으로 파급된 것으로 양 지역 검파형검초와 부장유물의 유사성 등을 통해 확인된다.

최근 조사된 양지리유적은 우리나라 옷칠 문화 연구에 중요한 점을 추가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조사된 비파형동검은 비파형동검의 검초의 형태를 추정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즉 비파형동검 검초가 적석목관묘단계의 세형동검 검초와 마찬가지로 검신형이었을 가능성을 알려주었다. 또한 검신형검초에서 검파형검초로의 변화는 세형동검문화 집단이 철기 문화의 확산 속에 기존의 위세용인 세형동검의 위세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고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옷칠은 물건의 내구성, 내열성, 방수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미적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한적인 원료를 인해 모든 물건에 하기 어려웠던 사치품이었다. 고대 철기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기나 위세품에서만 확인된다. 따라서 누구나 얻고자 하여 얻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따라서 철기의 부장량은 당시 유적 집단의 위상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양지리유적과 다호리유적이 당시 진한과 변한의 유력 집단으로 지역 내의 네트워크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철기였다.

이 글을 작성하는 가운데 부족한 자료의 한계로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비약과 추정에 근거하여 글을 작성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논리적 비약과 추정은 향후 고대 옷칠 자료가 더욱 축적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어 보완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러한 한계가 뚜렷함에도 이 글을 작성한 것은 부족하나마 이 글이 향후 우리나라 옷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우리나라 옷칠 문화의 기원과 출현에 대해 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具門慶, 2002, 『組立式 銅劍의 칼집에 대하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김해박물관, 2019, 『고대의 빛깔, 옷칠』.
- 국립김해박물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9, 『고인돌·널무덤 소장품 과학적 분석 보고서』.
- 국립대구박물관, 2020, 『땀다! 지배자 - 새로 찾은 이천 년 전 경산 양지리 널무덤』.
- 국립중앙박물관, 2006, 『북녘의 문화유산』.
- 국립중앙박물관, 2001, 『낙랑』.
- 국립중앙박물관, 1992, 『韓國의 靑銅器文化』, 범우사.
- 김수철, 2007, 『고대철기 분석 및 보존처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원웅·안휘준, 2003, 『한국미술의 역사-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시공사.
- 김은경, 2012, 『한국 옷칠예술의 형성과 그 시원에 관한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진, 2005, 『樂浪古墳 出土의 漆器 研究 -평양 석암리 205호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태, 1976, 『철기공예론』, 일지사.
- 김현중, 2017, 『조선시대 옷칠 정책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미야모토 오사무,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사회평론.
- 박영규·김동우, 2005, 『목칠공예』, 숲.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북부조선지역의 고대무덤』, 진인진.
- 손대현, 2006, 『전통옷칠공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 문화』, 청계.
- 이용희, 2010, 『우리나라 고대 철기의 철기법 연구-초기철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발굴 철기유물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석, 1984, 『한국 고대 철기 연구-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선, 2005, 『細形銅劍文化의 研究』, 學研文化社.
- 채희국, 1959, 『태성리 고분군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5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 하부 준코(강봉원 옮김), 2016, 『일본 조몬 고고학』, 사회평론.
- 安金槐(오강원 옮김), 1998, 『中國考古-夏商周 篇-』, 백산자료원.

(2) 논문

- 김민철, 2019, 『對外交流와 威勢品으로 본 首長層의 出現』, 『영남지역 수장층의 출현과 전개』, 제28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김민철, 2020a,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요강 출토 철과의 특징』, 『땀다! 지배자 - 새로 찾은 이천 년 전 경산 양지리 널무덤』, 국립대구박물관.
- 김민철, 2020b,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출토 검초의 특징』, 『땀다! 지배자 - 새로 찾은 이천 년 전 경산 양지리 널무덤』, 국립대구박물관.
- 김민철, 2021, 『한반도 남부지방 출토 검파형검초의 특징』, 『창원 다호리유적 재조명-금속기-』, 2021년 국립김해박물관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김상민, 2021, 『한반도 동남부지역 철기생산기술의 등장과 발전배경』, 『한국상고사학보』 104, 한국상고사학회.
- 김용성, 2016, 『영남지방 목관묘와 사로국』, 『한국고대사연구』 82, 한국고대사학회.
- 리기련, 1967, 『용추동 움무덤』, 『고고민속』 1967년 4호, 사회과학출판사.
- 박영성, 2013, 『한반도 남부지역 검초 연구』, 『考古學誌』, 제19집, 국립중앙박물관.
- 박순발, 1999, 『한성백제의 성립』, 『초청학술강연회 백제의 역사』, 국립부여박물관.
- 박유미, 2020, 『가야 고분군 출토 직물』, 『가야 직물』, 국립김해박물관.
- 박진일, 2016, 『대구 팔달동 유적 무문토기의 외질화와 그 의미』,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영남문화재연구원
- 박진일, 2020, 『분묘 구조로 본 마한과 진·변한 묘제의 전통과 개성』, 『철기문화 시기의 분묘와 매장』,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진일, 2021, 『점토대토기문화기 오동~서남한 지역 묘제의 전통과 변형』, 『철기문화 수용 시기의 분묘와 매장』,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백련행, 1966, 『천곡리 돌상자 무덤』, 『고고민속』 1966년 1호.

신대근, 2009, 『다호리유적 출토 의기의 특징』, 『과기고고연구』 15집, 아주대학교박물관.

신용민, 2006, 『김해 가야의 숲 3호 목관묘에 대하여』,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 내 김해 무계리 공동주택 건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심수연, 2011, 『영남지방 출토 두형토기 성격』, 『한국고고학보』 79, 한국고고학회.

안덕춘, 1988, 『韓國 木漆工藝의 研究』, 『전주대학교논문집』 17, 전주대학교.

오강원, 2013, 『청동기~철기시대 오령·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동양학』 5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오강원, 2020a, 『한국식동검문화(점토대토기문화)의 기원과 형성 과정』, 『한국의 청동기 문화2020』, 국립청주박물관.

오강원, 2020b, 『남한지역 세형동검의 출현과 전개』, 『한국고고학보』 117, 한국고고학회.

오광섭·정현석, 2015, 울산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출토 복안(覆顔)과 청동제유물의 재검토, 『야외고고학 제22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왕배신(양은경 역), 2009, 『낙랑문화와 주변지역과의 관련』, 『考古學誌』 특집호, 국립중앙박물관.

李建茂, 1994, 『韓國式銅劍文化』, 『韓國의 靑銅器文化』, 국립중앙박물관.

李建茂, 1995, 『韓國式銅劍의 組立式 構造에 대하여』, 『考古學誌』, 第7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이경미, 1992, 『樂浪古墳出土 漆器에 對한 一考察』, 『한국상고사학보』 11, 한국상고사학회.

이은경, 2021, 『1호 목관묘 출토 오수전 장식 동과초(銅戈鞘)』, 『경산 양지리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이제현·장용준, 2020, 『삼한시대 영남지역의 칠기』, 『삼한의 신앙과 의례』, 국립김해박물관.

이제현, 2021, 『김해지역 지석묘 축조의 지속과 사회적 의미』, 『영남의 지석묘 사회』, 국립김해박물관.

이주현, 1994, 『삼한의 목관묘에 대하여 -영남지방 출토 자료를 중심으로』, 『고문화』 4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이청규, 1997, 『嶺南지방 靑銅器文化의 전개』, 『영남고고학』 21, 영남고고학회.

장용준, 2019, 『웃과 웃나무 그리고 웃칠』, 『고대의 빛깔, 웃칠』, 국립김해박물관.

조현중, 2012, 『신창동 유적의 목기와 칠기』, 『2000년 전의 타임캡슐』, 국립광주박물관.

차순철, 2008, 『韓國의 漆生産과 變化』, 『경주문화연구』 10,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소.

황기덕 외, 1971, 『기원전 5세기~기원 3세기의 서북조선문화』, 『고고민속논문집』 3, 사회과학출판사.

황현성 외, 2013, 『평양 남정리 53호분 출토 토제칠기의 보존 및 제작기법 연구』, 『考古學誌』 제19집, 국립중앙박물관.

(3) 발굴조사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성주 백전 예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 1988, 『咸平 草浦里 遺蹟』.

국립경주박물관, 2000·2003, 『慶州 朝陽洞 遺蹟Ⅰ·Ⅱ』.

국립경주박물관, 2007, 『永川 龍田里 遺蹟』.

국립중앙박물관, 2012, 『昌原 茶戶里 1~7次 發掘調査 綜合報告書』, 國立中央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41冊.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2006,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 내 김해 무계리 공동주택 건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성림문화재연구원, 2020, 『경산 양지리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慶山 林堂洞 遺蹟Ⅰ』.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慶州 舍羅里遺蹟Ⅰ』.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大邱 八達洞 遺蹟Ⅰ』.

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慶山 林堂洞 低濕地遺蹟Ⅲ』.

이건무 외, 1989,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考古學誌』1, 국립중앙박물관.

이건무 외, 1991,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考古學誌』3, 국립중앙박물관.

이건무 외, 1993,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考古學誌』5, 국립중앙박물관.

이건무 외, 1995,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考古學誌』7, 국립중앙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1993, 『麗川 積良洞 상적 支石墓』.

趙現鐘 外, 1997, 『광주 신창동저습지 유적Ⅰ』, 국립광주박물관.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청주 오송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18, 『충주 호암동 유적』.
한빛문화재연구원, 2016, 『포항 성곡리 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경북 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20, 『2018년도 소규모 발굴조사보고서 XⅧ』.
한병삼·이건우 외, 1977, 『남성리 석관묘』,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서 10.

(4) 외국어

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17, 『URUSHIふしぎ物語-人ら漆の1200年史』.
郭寶鈞, 1951, 『一九五〇年春殷墟發掘報告』, 『考古學報』 1951年 5期, 中國科學院.
瀋陽古宮博物館·瀋陽市文物管理爲公室, 1975, 『瀋陽鄭家窪子的兩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學報』 1975年 1期.
鄭州市博物館, 1965, 『鄭州市銘功路西側的兩座商代墓』, 『考古』, 1965-10.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湖北發掘隊, 1962, 『湖北圻春毛家嘴西周木構建築』, 『考古』, 1962-1.
張飛龍, 2010, 『中國生漆文明的起源』, 『中國生漆』.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跨湖橋』, 文物出版社.
朝日新聞社, 2000, 『2000 古代史發掘総まくり』, 朝日新聞社.
河北省博物館·河北省文官外台西發掘小組, 1974, 『河北藁城县台西村商代遺址1973年的重要發現』, 『文物』 1974-8.
河姆渡遺址考古隊, 1980, 『浙江河姆渡遺址第2次發掘的主要收穫』, 『文物』 1980-5.
固始後古堆一號墓發掘組, 1981, 『河南固始後古堆一號墓發掘簡報』, 『文物』, 1981-1.